

5일 Market Index	
코스피 2441.55 (-234.64)	코스닥 691.28 (-88.05)
금리 (연이자율) 2.806 (-0.133)	환율 (원/달러) 1367.10 (-4.10)



코스피 8.77% 폭락 '검은 월요일'... 아시아 증시 패닉

4년만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코스피 234p 하락 2441.55 마감
코스닥은 11.3% 하락한 691.28

미국발 'R(경기침체)의 공포'로 인해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주요증시들이 폭락했다. 코스피는 이를 연속 급락세를 보이면서 '검은 금요일'에 이어 '검은 월요일'을 보냈다. <관련기사 3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64포인트(8.77%) 폭락한 2441.55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286 포인트(10.8%)까지 떨어지면서 2400선이 깨지는 등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직전 거래일이었던 2일에도 코스피는 3.65% 하락했다. 2거래일 동안 기관은 1조478억원, 외국인은 2조3743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만 홀로 3조313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장 초반부터 증시가 폭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동반 발동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락 폭을 줄이지 못한 채로 장을 마감했다. 양대 시장에 이러한 조치가 동시에 나온 것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이며, 역대 세 번째이다. 먼저 오후 1시 56분에 코스닥 지



코스피가 장중 2400선 아래로 급락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코스피 전광판에 이날 최저치인 2,386.96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수가 8% 넘게 하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고, 이후 오후 2시 14분에 코스피도 서킷브레이커가 발생했다. 이 역시 2020년 3월 19일 이후 최조다.

코스닥시장의 공포감은 역대급이어서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8.05포인트(11.30%) 급락한 691.28에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 700선이 깨진 것은 종가 기준 지난해 1월 10일 이후 573일만이다. 기관이 1188억원, 외국인이 5472억원을 사들였으나 시장의 투매 분위기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장마감후 1997조

7450억 원으로 하루 만에 약 192조 원이 증발했다. 시총 2000조 원이 깨진 것은 2024년 1월 22일 이후 196일 만이다. 코스닥시장이 시가총액은 338조4265억 원으로 하루 동안 약 43조 원이 날아갔다.

다만 김대중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증시 하락이 거의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이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크게 내릴 확률이 높는데 장기적으로는 90% 확률로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면서 폭락했는데, 보유한 주식이 우량주라면

이런 식의 투매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참아보는 것도 좋다"고 제언했다.

이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와 중동 지역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 일본 도쿄증시에서도 닛케이225지수가 전일 대비 12.40%(4451.28엔) 빠진 3만 1458.42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낙폭을 보였다. 지수 하락률은 1987년 10월 20일(14.9%) 이후 두 번째로 컸으며, 종가 기준으로 2023년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닛케이지수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단기 정책금리

를 인상한 지난달 31일에 1.49% 상승했지만 지난 1일(-2.49%)과 2일(-5.81%) 급락했다. 3거래일 기준 닛케이지수 성적은 2011년 대지진 당시 이후 최악이다.

일본의 종합주가지수인 토픽스(TOPIX)지수도 전장 대비 310.45포인트(12.23%) 하락한 2227.15에 장을 마무리했다. 장중 오사카 증권거래소는 동일본 대지진 직후인 2011년 3월 15일 이후 처음으로 토픽스 선물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하기도 했으나 폭락 장세를 막기에는 속수 무책이었다. 대만타이완지수 역시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35%(1807.21) 하락한 1만9830.88로 장을 마쳤다. 지수 산출이 시작된 1967년 이후 5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 2거래일만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 경기침체 공포에 젖어든 상황으로 언제 어디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다음주 공급관리협회(ISM)제조업지수, 실업수당청구건수, 7월 7월 소비자·생산자물가지수(CPI·PPI), 소매판매, 산업생산 결과를 확인하면서 변화의 트리거를 찾아볼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신하은·원관희 기자 godhe@metroseoul.co.kr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5일 SK하이닉스 주요 경영진과 함께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HBM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SK

“현재에 안주 말고 수익모델 고민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 '현장경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현장을 직접 찾아 AI(인공지능) 반도체 현안을 직접 챙겼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AI(인공지능) 거품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AI 반도체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해석된다.

최 회장은 5일 SK하이닉스 HBM 생

산 현장을 찾아 “SK하이닉스가 지금은 HBM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내년에 6세대 HBM이 상용화되면 더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차세대 수익 모델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살펴본 HBM 생산 라인인 최첨단 후공정 설비가 구축된 생산 시설이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부채 중심 금융시스템 구조 개선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 요인 점검
DSR 점진적 확대, 관리체계 강화

“우리 금융시스템이 외부충격에 취약한 이유는 주요국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5일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는 총 4959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206.5%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44개국 평균(150%)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경우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한다. 앞으로도 DSR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PF 부채에 대해서는 사업장 평가와 그 후속조치가 PF 부채 연착륙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사는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75% 총당금을 쌓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건설사의 경우 사업성 평가가, 금융사는 리스크관리가 문제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권과 건설업

계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부채와 관련해 새출발 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상환능력 안에서 누적된 채무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금융권은 PF, 소상공인부채 등 여러 리스크요인이 연계돼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 연체율은 현재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도 “금융사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하고, 총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금리안정시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만장일치 추진 /사진 뉴시스
▲민중, 양곡법·한우법·농안법 당론 채택...이숙연 임명동의는 '자율투표'

▲군, 북 미사일 발사대 250대 배치 위협에 “성능 확인 필요”
▲“민주당 vs 조국혁신당”...영광·곡성 군수 재선거 레이스 돌입



▲베세도 부활 주도하는 오세훈 “中 늑대외교 탈피해 해빙무드” /사진 뉴시스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